

“새로운 도전 멈추지 않는다” 무주군, ‘천마 산업’ 육성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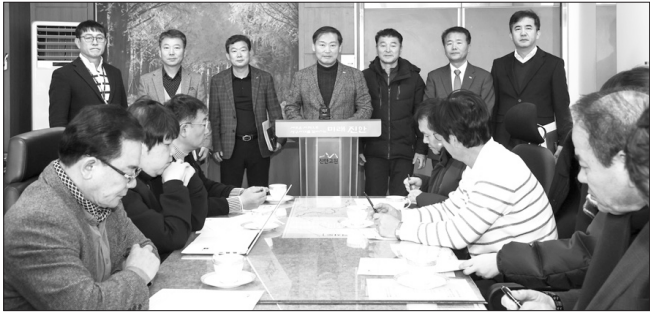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에도 선정 제외… “군민과 다시 댈다”

진안군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좌절 대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 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진안군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진안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 TF팀 구성, 사회단체 동참, 법군민 결의대회 개최 등 모든 행정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한데 모았으며,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2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는 7개 군만 선정되며 진안군은 아쉽게도 탈락했다. 그러나 진안군은 10월 29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 11월 13일 농해수위 예산 증액 의결을 이끌어냈으나, 12월



전춘성 진안군수가 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분회의에서 최종 10개 군만 포함되며 진안군은 제외됐다.

전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유치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군의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본소득 진안연대, 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1차 심사 통과는 우리 군의 정책 역량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뜻이며, 향후 사업 확대 시 우리 진안군이 ‘준비된 지역’으로 우선 평가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진안군은 포기하지 않는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재생에너지 연계 농촌기본소득 비전 제시

진안고원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주민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4일 지방 소멸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진안고원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진안형 농촌기본소득 기반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자립 의지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활용한 진안형 농촌기본소득 지급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진안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강력한 자립 모델을 만



들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과 같은 국정 기조에 발맞춰 진안군이 선도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야간관광진흥 정책 세미나’ 개최

무주군은 지난 3일과 4일 무주덕유산리조트 티볼호텔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의 의미를 지역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야간관광진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향적봉에 올라 생태·경관 자원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주최하고 지속발전포럼이 주



관한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 관광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과 부안군이 추진해 온 야간관광진흥도시 성과가 공유됐으며, △김선영 여가공간연구소

연구실장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강덕재 진주문화관광상품연구소 소장이 ‘지역소멸 대응 전북 야간관광진흥 활성화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홍창식 박사(지속발전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패널과 함께 △도내 야간 경관 자원 활용, △주민 참여형 관광 생태계 조성, △시군 간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3단계 무주천마클러스터 육성 사업 성과 공유

무주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결과 공유 및 2025년 하반기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천마 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천마 사업단, 농협, 천마 가공업체, 천마 작목반 및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3단계 동부권 클러스터 사업 성과와 △4차 아젠다 운영 결과, △천마 산업 성과 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 △4단계 마스터플랜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팜넷의 배현우 이사, ㈜지은 이지은 대표,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박상준 팀장 등 전문가들은 △무주 천마 원료 표준화, △생산-가공-소비의 연계성 강화, △천마 사업단의 자립화 방안 등 천마 산업 육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천마는 지역 농업과 산업을 이끌 핵심 미래 자원”이라며 “3단계 사업을 통해 기반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산업화·브랜드화·시장 확대 중심의 실질적 성장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격려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초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원들이 전북 산불지상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문성을 입증한 데 이어, 본격적인 건조·강풍 시기를 대비해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소 산불취약지 중심의 기동순찰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산불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최 군수는 진화 장비 배치 상황과 비상출동 체계를 점검하며 대원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후된 덕유산 곤돌라 교체, 공동법인 설립해 추진”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시설 노후화로 운행 중단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어 “늙은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군이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공동으로 출자법인을 설립해 곤돌라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곤돌라 교체사업을 관광 안전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략사업으로 보고 민간과의 출자 법인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주관광을 만들어가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구천동 33경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본격화

무주군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6년 1월부터 실시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착수할 계획으로, 덕유산과 구천동 33경의 풍부한 자연·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구천동 33경 생태탐방로 17.6km를 개설하고 포토존을 비롯한 휴게 쉼터,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억 원이 투입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구천동 33경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무주군 대표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제1경 라계동문에서 제14경 수경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가 없어 그동안 방문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라며 “새롭게 조성될 무주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가 단순한 길을 넘어 구천동 33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생태로이자 힐링 관광을 주도하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진행

진안군은 연말을 맞이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진안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을 통해 진안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하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진안군 인기 답례품인 ‘돼지고기’(3만 원 상당)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추가답례품을 개인이 받는 대신 아동들에게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선행 기부 캠페인도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